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손 영 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 숙 정*

한겨레심리상담센터

박 정 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서로 구별되는 성격유형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새터민 16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158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강도, 자기통제성, 대담성, 불안성 척도에서 65T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타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한편 실리성과 진보성 척도에서는 34T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타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른 다요인인성검사 T점수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요인인성검사 T점수 프로파일을 토대로 여성새터민의 성격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제 1군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 정서성(높은 예민성, 불안성, 자책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다. 제 2군은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남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남한사회의 빠른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3군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아가 성숙되며, 적절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한 특성으로,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정도도 높았다. 각각의 군집은 심리적응척도(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여성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심리적·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여성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성격, 다요인인성검사, 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

* 교신저자 : 강숙정, 한겨레심리상담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1동 현대 41타워 3914호
Tel : 02-2642-1233, E-mail : ksjoyean@hanmail.net

1990년대 중반 이후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2만 5천명을 넘었다. 특히 여성 새터민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2002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래 현재 누적으로는 전체 새터민의 69.4%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2). 새터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삶의 위기를 겪었으며, 낯선 남한의 사회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 특히 여성 새터민은 남성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탈북과정에서, 심리건강 및 남한사회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입국 전까지 제 3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강제송환의 두려움과 생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감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 그리고 남성과 달리 난민과정에서 성폭력, 인신매매로 인한 매춘강요, 무국적자로서 중국남성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후 사생아를 출산하는 문제 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현경, 2007). 입국 후에도 남한사회에서의 자녀양육과 복잡한 가족관계는 여성 새터민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이민영, 2005; 이민영, 김현경, 2007). 김희경과 오수성(2010) 그리고 장혜경과 김영란(2001)은 여성 새터민들이 북한과 다른 남한의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해 당혹감과 이질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남한사회에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절히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하는 등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정란(2009)은 여성 새터민이 제 3국 체류시 형성된 배우자 관계와 자녀출산, 제 3국에 남겨둔 자녀 돌봄, 그리고 북한에서의 원배우자와 자녀출산, 남한 입국 이후 형

성된 새로운 가족관계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성 새터민의 이러한 어려움은 심리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제 많은 연구들은 여성 새터민이 남성에 비해 대처방식, 신체화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여성 새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강숙정, 이장호, 2009; 김희경, 오수성, 2010;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노대균, 2001; 조영아, 2009). 로샤검사를 통해 새터민의 대처와 방어에 대해 연구한 최윤경 외(2009)는 여성 새터민이 남성 새터민 및 남한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인 대처자원이 빈약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무능력과 관련된 취약성이 크며, 부정적인 심리장애 및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을 살펴본 김종남 외(2008), 김희균과 신현균(2010)은 여성 새터민이 남성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으며,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우울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남한사회에 심리내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성격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 새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심리학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여성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인성 및 심리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가 이루어져왔다(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김희경, 전진용, 2010; 김희경, 신현균, 2010).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MMPI 검사를 실시한 김현아와 전명남(2004)은 이들이 Pa척도, Ma척도, Sc척도, Hs척도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강숙정과 이장호(2009)는 지역사회 정착중인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MMPI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Pa척도, Pt척도, Sc척도, Ma 척도 수치가 높으며, 특히 여성 새터민이 남성에게 비해 조울증을 제외한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내향성 등의 임상적 증후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희경과 신현균(2010)은 간이심리상태검사(BPSI-NKR)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착 전후 새터민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심리적 증상을 살펴보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예민 수준이 높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주문제가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새터민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심리적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첫째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새터민의 심리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임상척도도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새터민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설명하나, 심리안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상태 및 성격변

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터민의 심리안정 및 적응에 대한 인과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과 이들의 독특한 성격 및 심리적 특성을 유형화 혹은 분류하는 것은 새터민을 이해하기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각 유형에 적합한 심리상담 및 교육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강숙정, 2009; 김희경, 오수성, 2010).

둘째, 새터민의 성격 및 인성적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MMPI 등과 같은 임상적 진단도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도구는 피검자의 문제증상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심리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새터민의 경우, 탈북에서 입국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의 상황에 노출되었으며, 그 상황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깊은 심리적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열악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고, 살아왔던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력, 끈기, 목표 등의 긍정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MMPI, 로샤, 간이심리상태검사(BPSI-NKR) 등의 임상적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새터민의 심리적 상처를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새터민의 강점과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표준화성격검사를 활용한 김현아(2004)의 연구와 다요인인성검사를 활용한 김계순(2006) 등의 연구를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적인 자원과 강점, 성격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되,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김정규, 염태호, 2009)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새터민의 성격특성을 확인하고, 이

들의 심리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인과 성격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새터민의 심리안정과 적응에 보다 유용한 심리적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은 새터민의 남한 사회 심리적응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왔다. 새터민들에게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권과는 판이하게 다른 남한의 사회·문화·정치·경제 속에 들어오면서 필연적으로 행동, 가치관, 태도 등 개인의 정체감의 변화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김은경, 허석재, 2009; Berry, 1980). 새터민들은 남북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문화(原文文化)를 집단적,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지하려면 많은 심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김은경, 허석재, 2009; 채정민,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새터민은 자신의 원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쪽보다 남한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쪽이 더 적응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적응스트레스는 오히려 개인이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어느 것도 명료하지 않은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새터민 심리적응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개인에 따라 어떻게 위기(risk)에 대응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인 위험환경이나 심리적인 위험환경에 처한 개인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역경이나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기능수행을 적절하게 회복하며,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오승환, 2006; Rausch, Lovett & Wlaker, 2003). 새터민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두려움, 불안과 긴장의 삶을 살아왔으며,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합하는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새터민은 위험상황이나 심각한 역경 등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 현실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응유연성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적응유연성이 빈곤가정, 이혼가정,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유능성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류재중, 조아미, 2007).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본 김윤나(2007)의 연구는 적응유형과 적응유연성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인성 및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격특성과 심리적응(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럼으로써 여성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방안을 논의해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14가지 성격특성 프로파일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14가지 성격특성이 심리적응(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14가지 성격특성의 T점수 프로파일을 토대로 성격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이 갖는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각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할 복지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 새터민들이었다. 설문지는 2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는데, 첫째는 전화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설문응답을 수락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둘째는 복지관에서 실시한 심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응답을 수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163부이었으며, 응답완료여부, 역척도 문항의 반응일관성 확인, 회귀분석에서의 케이스별 진단 등을 통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2세~79세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40.47세이었다. 정착기간은 3년 이하가 12.6%(16명), 5년 이하가 44.9%(57명), 10년 이하가 28.3%(36명), 그 이상이 14.2%(18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다요인인성검사II

다요인인성검사II는 R. B. Cattell이 제작한

표 1. 조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비율(빈도)
연령	30세 이하	11.4%(18명)
	31~40세	43.0%(68명)
	41~50세	28.5%(45명)
	51세 이상	17.1%(27명)
정착기간	3년 이하	12.6%(16명)
	4~5년	44.9%(57명)
	6~10년	28.3%(36명)
	그 이상	14.2%(18명)
학력	인민학교	7.5%(10명)
	고등중학교	80.5%(107명)
	전문대졸이상	12.0%(16명)
생활정도	상	4.6%(4명)
	중	23.0%(20명)
	하	72.4%(63명)

‘16성격요인검사(SPFQ: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를 토대로 김정규와 염태호(2009)가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검사로, 성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임상장면에서 환자들의 문제를 진단하는데도 유용한 검사로 보고되고 있다. 본 검사의 타당화 연구결과 신뢰도는 .80~.90이었다(김정규, 염태호, 2009). 타당도를 측정하는 무작위척도 이외에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성, 자기통제성, 불안성을 측정하는 14개의 척도(각 10문항씩 140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성척도는 피검자의 대인관계 선호정도를 측정하며, 자아강도척도는 자아의 안정성을 측정한다. 지배성척도는 대인관계 방식을 반영하며, 정열성척도는 행동의 활발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도덕성척도는 초자아의 내면화 상태를 알아보는 척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성실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담성척도는 대인관계 행동에 있어서 대담한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척도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담하고, 모험적이며,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예민성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의존적이며, 나약하고, 불안정하며, 관심과 동정을 원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공상성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생각이 많고, 일상적인 문제보다는 상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 실리성척도는 실리적이며, 기민하며, 세상물정에 밝은 정도를 측정하며, 자책성 척도는 죄책감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진보성은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정도와 진보적, 급진적인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결정성과 자기통제성은 의사결정방식과 자기행동통제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불안성척도는 정서불안정도를 측정한다.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아정체감의 자각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Dignan(1965)이 개발하고, 이경혜(1997)가 수정한 20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회피, 주도성, 정체감혼미, 목표지향성 등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회피'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주도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주도적으로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체감 혼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불명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지향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나가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80, .64, .79, .67이었다.

적응유연성

여성 새터민의 심리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현아(2006)가 탈북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개발한 42문항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꿈과 목표, 종교적 성향, 친밀감, 강인성, 삶에 대한 혼란 등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꿈과 목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꿈과 목표가 뚜렷하며, 이를 달성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노력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종교적 성향'은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강인성'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강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혼란'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92, .89, .83, .83, .79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추출된 성격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여성 새터민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새터민의 다요인인성검사 척도별 T점수의 분포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다요인인성검사Ⅱ 매뉴얼에서는 T점수의 분포에 따라 7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T점수가 34점 이하와 65점 이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격특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억압된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문제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김정규, 염태호, 2009), 개별 피검자를 진단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최하와 하의 차이, 그리고 최상과 상의 차이에 대한 임상적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집단을 4집단으로 재범주화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최하(30이하)와 하(31~34)에 해당하는 T점수를 下집단에, 중하(35~44)와 중(45~54)를 中집단에, 중상(55~64)을 中上집단에, 상(65~69)와 최상(70이상)을 上집단에 분포시켰다.

둘째, 여성 새터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성격특성(다요인인성검사 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분포를 고려하여 연령을 고(45세 이상)/중(36-44세)/저(35세 이하)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남한에 거주해온 집단'과 '6년 이상 거주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거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의 경우, 응답이 특정 집단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 다요인 인

성검사점수와 차이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여성 새터민의 14가지 인성 및 성격특성이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정착기간이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표 2 참조), 이들 변수를 회귀분석의 1단계에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 14가지 성격특성을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넷째, 여성 새터민의 다요인인성검사 프로파일의 하위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T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요인인성검사에 따른 유형분류를 위하여 Ward법을 통한 계층적 군집분석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nonhierarchical clustering)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과 수직고드름표를 기준으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K-평균을 이용한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군집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적절한 군집의 개수가 3개인 것으로 판단되어,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3개의 군집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정착기간, 생활정도, 가족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적인 표제시를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출된 3가지 성격유형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응 변수간 상관관계

		연령	정착기간	학력	생활정도
자아 정체감	사회적 회피	-.019	-.205*	-.118	-.070
	주도성	.087	.102	.021	-.024
	정체감 혼미	-.277***	.007	-.024	-.191*
	목표지향성	-.192*	.084	.036	.005
적응 유연성	꿈과 목표	-.165*	.061	-.083	.121
	종교적 지향	.177*	.105	.101	-.082
	친밀감	.144	.228**	.018	-.066
	강인성	.046	.116	.057	.078
	삶에 대한 혼란	.125	-.193*	-.127	-.011

* $p<.05$, ** $p<.01$, *** $p<.001$

이 군집 간에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심리적응변수(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연령과 정착기간을 공변인으로 삼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여성 새터민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

다요인인성검사Ⅱ 척도별 T점수와 분포
여성 새터민의 다요인인성검사결과, 척도별 T점수의 평균이 44.90점에서 53.84점에 분포된 것으로 드러났다(표 3 참조). 하위척도의 구간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자아강도(12.7%), 대담성(12.7%), 자기통제성(11.4%), 불안성(10.1%) 척도의 경우, 65T이상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타 척도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다요인인성검사Ⅱ의 T점수 별 백분위 비율(65T 이상:

3~7%)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일반 남한사람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결과는 자아강도가 높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여성 새터민의 비율도 높은 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며(자기통제성), 정서적으로 불안하고(불안성), 행동적으로 지나치게 대담하고, 적극적인(대담성) 여성 새터민의 비율도 상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34T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리성 척도가 13.9%, 진보성 척도가 14.6%로 타 척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요인인성검사Ⅱ의 T점수별 백분위 비율(34T 이하: 5% 이하)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의 세상물정에 밝지 못하고, 지나치게 순진한 방식으로 반응할 경향성이 있으며, 변화를 꺼려하고, 보수적·전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3. 여성 새터민의 다요인 인성검사 척도별 T점수와 분포

척도	M(SD)	34T이하(하)	35~54T(중)	55~64T(중상)	65T이상(상)
		빈도(%)			
온정성	51.12(7.73)	2(1.3%)	100(64.1%)	53(33.5%)	1(0.6%)
자아강도	53.01(9.39)	2(1.3%)	95(60.1%)	41(25.9%)	20(12.7%)
지배성	49.34(8.89)	7(4.5%)	104(66.2%)	40(25.5%)	6(3.8%)
정열성	51.75(8.50)	-	103(65.6%)	42(26.8%)	12(7.6%)
도덕성	51.52(9.32)	2(1.3%)	101(63.9%)	47(29.7%)	8(5.1%)
대답성	53.84(8.14)	-	94(59.9%)	43(27.4%)	20(12.7%)
예민성	48.74(8.73)	6(3.8%)	114(73.1%)	34(21.8%)	2(1.3%)
공상성	49.46(8.20)	3(1.9%)	114(72.6%)	36(22.9%)	4(2.5%)
실리성	46.34(10.76)	22(13.9%)	101(63.9%)	31(19.6%)	4(2.5%)
자책성	46.72(9.02)	4(2.5%)	118(74.7%)	30(19.0%)	6(3.8%)
진보성	44.90(8.85)	23(14.6%)	119(75.3%)	7(4.4%)	9(5.7%)
자기결정성	51.82(7.58)	2(1.3%)	105(66.9%)	38(24.2%)	12(7.6%)
자기통제성	51.38(10.62)	6(3.8%)	92(58.2%)	42(26.6%)	18(11.4%)
불안성	50.28(10.84)	6(3.8%)	97(61.4%)	39(24.7%)	16(10.1%)

* 자아강도와 불안성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점수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음(김정규, 염태호, 200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요인인성검사II
척도별 T점수 차이

여성 새터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연령은 온정성, 실리성, 자책성, 불안성을 제외한 10개의 성격특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정착기간은 자아강도, 대답성, 자책성, 불안성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는 자기결정력에, 생활정도는 온정성과 정열성, 예민성에만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학력과 생

활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변인은 예컨대 고등학교에 80.5%가 포함되는 등 특정 집단에 편포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본 고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격특성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차이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고르게 하위 집단간 편포가 이루어진 연령과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성격특성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온정성과 자아강도, 자기결정성과 자기통제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 척도가 연령 고/중/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14 성격변수 간 상관관계

	연령	정착기간	학력	생활정도	
성격 변인	온정성	.094	-.065	-.079	-.191*
	자아강도	-.165*	.233**	.087	-.005
	지배성	.192*	-.071	.149	.021
	정열성	.280***	.105	-.075	-.212**
	도덕성	-.268***	-.005	.112	.025
	대담성	.259***	.206**	.121	-.115
	예민성	.369***	-.005	.044	.181*
	공상성	.365***	.079	.045	.094
	실리성	.061	-.041	.051	.147
	자책성	.085	-.239**	-.047	.018
	진보성	.224**	.123	.097	.070
	자기결정	-.207**	.091	.233**	.053
	자기통제	-.172*	-.086	.136	.012
	불안성	.032	-.177*	-.017	.013

* $p<.05$, ** $p<.01$, ***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담성과 불안성 요인은 .01수준에서, 예민성과 진보성 요인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각 연령집단의 성격적 특성을 정리하면, 연령 低집단(35세 이하)은 타 집단에 비해 지배성과 정열성, 대담성, 진보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대인관계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성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공상성과 불안성 수준이 낮고, 실리성 수준이 높아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또한 타 집단에 비해 도덕성은 높고, 자책성과 불안성 수준은 낮게 나타나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면서

자기 확신이 있어 죄책감과 불안감을 비교적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연령 中집단(36~45세)은 타 집단에 비해 정열성, 대담성, 지배성, 진보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모험적·진보적이며, 사교적인 성향이 있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실리성 수준은 낮고, 불안성과 자책성, 도덕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타 집단에 비해 실리적·현실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불안감과 자책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 高집단(46세 이상)은 타 집단에 비해 지배성은 높으나 정열성과 도덕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성은 높으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적고, 집단활동이나 규범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표 5. 연령과 정착기간에 따른 다요인인성검사 점수 차이

집단 구분	온정성	자아 감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 결정성	자기 통제성	불안성
연령	저	51.19 (7.96)	52.89 (6.88)	45.93 (8.45) ^a	49.57 (5.78) ^a	51.71 (7.15) ^a	51.54 (6.59) ^a	47.36 (7.03) ^a	47.14 (7.44) ^a	41.11 (8.51) ^b	43.11 (8.13) ^b	50.79 (6.78)	49.89 (8.47)	46.29 (8.60) ^a
	중	52.84 (7.42)	53.92 (10.33)	51.68 (8.85) ^a	55.88 (8.30) ^b	53.84 (9.86) ^a	56.76 (8.05) ^a	48.67 (8.53)	49.36 (6.90)	40.16 (9.94) ^a	47.60 (8.27) ^a	52.88 (7.82)	53.16 (11.96)	52.56 (12.71) ^b
	고	49.74 (7.41)	51.35 (8.96)	51.26 (8.55) ^a	51.65 (8.19) ^a	47.26 (8.87) ^a	54.65 (8.16)	52.04 (8.97) ^b	53.26 (9.00) ^b	51.44 (11.47) ^b	45.52 (8.15)	50.70 (7.36)	49.78 (10.28)	51.61 (9.44) ^b
	F값	1.596	.969	7.350 ^{***}	8.823 ^{***}	7.201 ^{***}	6.159 ^{**}	4.337 ⁺	7.889 ^{***}	15.808 ^{***}	3.654 ⁺	1.482	1.753	5.678 ^{**}
거주 기간	5년	50.86 (7.23)	53.06 (10.57)	48.54 (7.89)	49.63 (7.62)	51.97 (8.10)	53.43 (7.41)	48.08 (8.31)	49.54 (7.57)	45.23 (11.25)	42.91 (8.24)	51.31 (8.26)	51.80 (10.66)	48.22 (10.45)
	6년	51.32 (7.79)	54.68 (8.05)	49.86 (9.90)	54.69 (7.91)	50.97 (10.17)	55.97 (8.45)	49.00 (9.73)	49.69 (8.36)	45.52 (9.93)	47.28 (8.67)	52.93 (6.21)	50.68 (11.00)	50.45 (10.92)
	이상													
	F값	-3.46	-9.26	-8.40	-3.667 ^{***}	.590	-1.810	-6.40	-0.98	-1.52	-2.621 ^{**}	-1.290	.613	-1.172

⁺ $p < .05$, ^{**} $p < .01$, ^{***} $p < .001$, $a < b < c$

그리고 예민성과 공상성 수준이 높아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생각이 많고, 상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실리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이며, 실리적으로 환경과 접촉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타 집단에 비해 자책성과 불안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긴장감이 높으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착기간에 따른 다요인인성검사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열성($t=-3.667$, $p<.001$)과 진보성($t=-2.621$, $p<.01$)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6년 이상 거주한 집단이 5년 이하의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사교적인 경향을 가지며, 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는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새터민의 성격특성이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요인인성검사의 14가지 성격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회피, 주도성, 정체감 혼미, 목표지향성을 종속변인으로 삼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성격특성의 순수 설명변량을 살펴보기 위해 1단계로 연령과 정착기간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는 다요인인성검사의 14가지 성격특성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회피의 경우, 성격특성이 전체 변량의 26.9%를 설명하고 있으며($F=3.62$, $p<.001$), 특히 도덕성($p<.01$)과 온정성($p<.05$)이 사회적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도성은 성격특성이 전체 변량의 26.0%를 설명하였으며($F=3.09$, $p<.001$), 도덕성과 진보성이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체감 혼미의 경우, 성격변인이 전체의 30.8% 설명하고 있으며($F=5.02$, $p<.001$), 실리성과 불안성이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정열성($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성격변인이 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변량의 35.2%이었으며($F=5.30$, $p<.001$), 온정성과 자아강도가 목표지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안성은 목표지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격특성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1단계에는 연령과 정착기간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는 다요인인성검사의 14가지 성격특성을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격변인이 적응유연성의 모든 하위요소에 약 30%-50% 정도의 상당히 높은 변량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꿈과 목표의 경우, 성격특성이 전체 변량의 37.3%를 설명하고 있었다($F=5.56$, $p<.001$). 특히 도덕성($p<.001$)과 자기결정($p<.05$)이 꿈과 목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상성($p<.05$), 실리성($p<.05$), 불안성($p<.05$)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적 성향의 경우(설명변량: 29.2%, $F=4.12$, $p<.001$), 자기통제와 공상성이 높고, 진보성이 낮을수록 종교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격변인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

표 6. 성격특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사회적 회피			주도성			정체감 혼미			목표지향성		
		B	β	ΔR^2	B	β	ΔR^2	B	β	ΔR^2	B	β	ΔR^2
		R ²											
1단계	연령	-.001	-.020	.040	.006	.092	.014	-.020	-.273***	.075	-.010	-.190*	.041*
	정착기간	-.078	-.200*		.023	.069		-.008	-.109		.021	.073	
2단계	온정성	-.032	-.276*	.269***	.000	.004	.260***	.009	.073	.308***	.039	.449***	.352***
	자아강도	.012	.125		-.013	-.149		-.014	-.139		.024	.333**	
	지배성	-.007	-.069		-.002	-.023		.005	.046		.005	.072	
	정열성	-.002	-.019		.021	.224		-.025	-.232*		-.014	-.183	
	도덕성	-.040	-.392**		.040	.466***		-.002	-.021		-.002	-.025	
	대담성	-.021	-.189		-.018	-.192		.014	.127		-.010	-.126	
	예민성	.014	.133		-.009	-.095		.002	.021		.012	.163	
	공상성	.004	.038		.002	.022		.002	.015		.004	.053	
	실리성	.009	.100		-.004	-.053		.025	.285***		.004	.069	
	자책성	.010	.102		-.003	-.034		.001	.013		.022	.299*	
	진보성	.013	.128		.035	.391***		.000	.000		.012	.156	
	자기결정	-.002	-.015		.014	.132		-.014	-.111		.017	.195*	
	자기통제	.025	.282		-.020	-.270		.008	.090		-.011	-.170	
	불안성	.009	.110		-.019	-.255		.039	.455***		-.024	-.394**	

* $p<.05$, ** $p<.01$, *** $p<.001$

향력은 전체 변량의 29.8%이었으며($F=4.73$, $p<.001$), 온정성과 진보성이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도덕성과 자기결정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성격변인이 강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49.6%에 해당하며($F=8.63$, $p<.001$), 특히 불안성이 유의도 .001수준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다음으로 자아강도, 지배성, 자책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혼란의 경우, 성격변인이 48.8%를 설명하고 있다($F=9.27$, $p<.001$). 특히 성격변인 중 불안성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혼란이 심한 반면($p<.001$), 온정성($p<.01$), 도덕성($p<.01$),예민성($p<.01$), 대담성

($p<.05$) 정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혼란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군집분석을 통한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다요인인성검사 14척도의 T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제 1군은 타 군집에 비해 불안성, 자책성, 예민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긴장 및 불안수준이 높으며, 불안, 우울, 죄책감 등

표 7. 성격특성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교적 실험			진입감			강인성			삶에 대한 존중					
	β	ΔR^2	β	β	ΔR^2	β	β	ΔR^2	β	β	ΔR^2	β	β	ΔR^2	
1단계	R^2														
		.404			.341			.366			.313			.227	
2단계	연령	-.009	-.167	.012	.163	.046**			.139	.008	.037	.017	.007	.120	.039
	정착기간	.022	.068	.059	.146		.060	.216***		.060	.123		-.051	-.163*	
성격 변인	은정성	.018	.183	-.003	-.021		.026	.260**		.026	.143		-.028	-.208**	
	자아강도	.008	.093	-.009	-.090		.013	.188		.026	.320***		-.003	-.043	
	지배성	-.006	-.071	-.001	-.012		.001	.008		.014	.173*		.003	.039	
	정열성	.004	.043	-.007	-.064		-.004	-.043		.000	-.003		.016	.185*	
	도덕성	.033	.442***	-.034	-.233		-.026	-.323***		-.006	-.070		-.026	-.333***	
	대담성	.000	.004	-.001	-.003		.006	.071		-.003	-.032		-.021	-.236*	
	세민성	.011	.134	.003	.031	.203**	.000	-.004		-.006	-.072	.496***	-.021	-.251**	.488***
	공감성	-.018	-.204*	.037	.318***		-.001	-.010		.003	.051		.013	.143	
	심리성	-.011	-.162*	-.012	-.132		-.001	-.021		-.001	-.009		-.002	-.033	
	지각성	-.009	-.106	-.032	-.305*		.004	.046		.028	.333**		-.002	-.019	
	견고성	-.006	-.079	-.036	-.337***		.022	.268***		.012	.141		.013	.135	
	자기결정	.019	.200*	-.022	-.178		-.016	-.165*		.013	.132		-.014	-.190*	
	자기통제	-.014	-.210	.043	.319***		.006	.090		.010	.140		.017	.238*	
	불안성	-.019	-.256*	.016	.184		-.003	-.043		-.038	-.252***		.030	.40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여성 새터민의 군집별 특성

요인	제 1군 (n=41)	제 2군 (n=58)	제 3군 (n=54)	F
온정성	50.71 ^a	47.69 ^a	55.11 ^b	15.19***
자아강도	46.90 ^a	48.90 ^a	61.11 ^b	66.35***
지배성	52.33 ^b	44.52 ^a	52.59 ^b	17.32***
정열성	52.90 ^b	47.52 ^a	54.89 ^b	12.90***
도덕성	52.00 ^b	46.62 ^a	56.15 ^b	17.92***
대담성	52.14 ^a	49.28 ^a	60.22 ^b	38.89***
예민성	53.57 ^b	45.48 ^a	48.81 ^a	11.95***
공상성	54.05 ^b	47.17 ^a	49.00 ^a	9.96***
실리성	48.19 ^b	39.83 ^a	52.19 ^b	25.13***
자책성	57.52 ^b	44.93 ^a	40.67 ^a	96.92***
진보성	49.05 ^b	39.38 ^a	47.30 ^b	22.65***
자기결정	49.70 ^a	51.45	55.00 ^b	6.14**
자기통제	53.62 ^b	44.10 ^a	57.67 ^b	34.13***
불안성	62.57 ^c	50.00 ^b	41.37 ^a	107.01***

* $p<.05$, ** $p<.01$, *** $p<.001$, a<b<c

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배성과 정열성, 진보성, 실리성, 자기통제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제 1군에 속한 새터민들이 타 군집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며, 사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진보적이며, 실제적 현실대처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반영한다.

제 2군은 제 1군에 비해 자책성과 불안성, 공상성, 예민성 수준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자아강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 2군에 속한 여성새터민이 제 1군에 비해 긴장과 불안수준이 낮고, 불안과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아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타 군집에 비해 온정성,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실리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인관계에 있어 소심하고, 조심스러우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한편 대인관계가 서투르고, 세상물정에 어두워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제 1군과 제 3군에 비해 낮은 도덕성과 진보성 수준은 제 2군에 속하는 여성 새터민들이 상대적으로 남한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남한사회의 빠른 변화를 싫어하는

표 9.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간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자아 정체감	사회적 회피	공변인(연령)	.024	1	.024	.859
		공변인(정착기간)	2.387	1	2.387	.080+
		집단간	7.783	2	3.892	.008**
		집단내	103.569	135	.767	
	주도성	공변인(연령)	.159	1	.159	.617
		공변인(정착기간)	.215	1	.215	.560
		집단간	6.115	2	3.058	.009**
		집단내	85.345	135	.632	
	정체감 혼미	공변인(연령)	10.570	1	10.570	.000***
		공변인(정착기간)	1.198	1	1.198	.188
		집단간	24.986	2	12.493	.000***
		집단내	92.406	135	.331	
	목표지향성	공변인(연령)	2.842	1	2.842	.004**
		공변인(정착기간)	.378	1	.378	.287
		집단간	10.374	2	5.187	.000***
		집단내	44.703	135	.331	
적응 유연성	꿈과 목표	공변인(연령)	2.324	1	2.324	.031*
		공변인(정착기간)	.000	1	.000	.988
		집단간	10.810	2	5.405	.000***
		집단내	67.784	139	.488	
	종교적 성향	공변인(연령)	3.811	1	3.811	.039*
		공변인(정착기간)	2.272	1	2.272	.109
		집단간	1.193	2	.591	.510
		집단내	121.478	139	.874	
	친밀감	공변인(연령)	.749	1	.749	.208
		공변인(정착기간)	2.002	1	2.002	.041*
		집단간	10.195	2	5.098	.000***
		집단내	65.124	139	.874	
	강인성	공변인(연령)	.003	1	.003	.939
		공변인(정착기간)	.432	1	.432	.330
		집단간	18.272	2	9.136	.000***
		집단내	62.814	139	.452	
	삶에 대한 혼란	공변인(연령)	.873	1	.873	.111
		공변인(정착기간)	.658	1	.658	.166
		집단간	21.768	2	10.884	.000***
		집단내	47.093	139	.339	

* $p<.05$, ** $p<.01$, *** $p<.001$, + $p<.10$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제 3군은 대인관계선호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온정성과 지배성, 대담성, 실리성 척도의 점수가 높아,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며, 타인과 잘 협력하고, 배려하며,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높은 자아강도와 낮은 예민성, 낮은 불안성, 낮은 자책성 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평온하며, 성숙된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제 1군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 정서성(높은 예민성과 불안성, 자책성)이 군집을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으며, 제 2군은 제 1군에 비해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의 어려움과 남한사회의 변화와 규범, 규칙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즉, 남한사회에 대한 재사회화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제 3군은 타 군집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숙하며, 사교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특성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남한사회 심리적응

앞서 추출된 3가지 군집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심리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연령과 정착기간 변수를 공변인으로 삼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Levene's의 동등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동등성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표 9 참조),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 바, 사회적 회피와 주도성은 $p<.01$ 수준에서, 정체감 혼미와 목표지향성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적응유연성의 경우, 종교적 성향은 통

표 10. 성격유형별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평균(표준편차) 및 사후검증 결과

심리적응	하위요인	제 1군	제 2군	제 3군
		M(SD)	M(SD)	M(SD)
자아정체감	사회적 회피	2.74(1.05) ^b	2.99(.78)^c	2.30(.85) ^a
	주도성	3.56(.89) ^b	3.25(.79) ^a	3.75(.71) ^c
	정체감 혼미	3.37(.97)^c	2.68(.81) ^b	2.36(.87) ^a
	목표지향성	3.70(.75) ^b	3.48(.61) ^a	4.10(.41) ^c
적응유연성	꿈과 목표	3.55(.82) ^a	3.76(.60) ^b	4.22(.71) ^c
	종교적 지향	2.50(.69)	2.73(.82)	2.69(1.21)
	친밀감	3.10(.74) ^a	3.01(.64)^a	3.63(.71) ^b
	강인성	3.63(.68) ^b	3.37(.77) ^a	4.20(.54) ^c
	삶에 대한 혼란	2.88(.52)^c	2.43(.68) ^b	1.85(.71) ^a

* 조정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음, a<b<c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꿈과 목표, 친밀감, 강인성, 삶에 대한 혼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9 참조). 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표 10 참조), 전반적으로 제 3군이 타 군집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에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남한사회에서의 심리적응 수준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 1군과 제 2군은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 점수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보이는데, 제 1군의 경우, 제 2군에 비해 삶에 대한 주도성과 강인성이 높은 반면 자신의 정체감과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정체감 혼미, 삶에 대한 혼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2군은 제 1군에 비해 자신의 정체감과 삶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정도는 낮았으나, 주도성과 강인성이 낮고, 남한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맺음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II 점수분포를 토대로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남한사회 심리적응적 특성(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새터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개발 그리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요인인성검사의 구간별 분포비율을

살펴본 결과, 자아강도, 자기통제성, 대담성, 불안성 척도에서 65T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10%이상으로 타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요인인성검사II에 제시된 T점수별 백분위 비율(65T 이상: 3~7%)보다 높은 것이다. 그리고 실리성과 진보성 척도는 34T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각각 13.9%와 14.6%로 타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요인인성검사II에 제시된 T점수별 백분위 비율(34T이하: 5% 이하)보다 높은 것이다.

여기서 자아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이 53.01점으로 대담성 다음으로 높았으며, 65T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도 12.7%로 대담성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여성 새터민들이 탈북과정동안 그리고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강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터민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진미정, 이순형(2006)은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자아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대담성은 높고, 진보적 성향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적극적이고, 모험적이며,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이 높은 반면,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다소 반대되는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탈북을 감행하고, 제 3국 등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입국할 정도로 강인하고 적극적이며, 입국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화되었을 수 있

다. 그러나 문화나 체제, 제도,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수십년 동안 몸담았던 고향의 혼과 정서, 가치관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낮은 진보성 수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숙정 외(2010)는 새터민들이 훼손되지 않은 한국인의 진취적인 기질과 예술성이 보존되어 있으며, 서구적 자본주의 가치에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한국적(고구려) 정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조사대상자들이 불안성 수준은 높고, 실리성 수준은 낮으며, 그 비율도 다요인 인성검사Ⅱ에 제시된 T점수 별 백분위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새터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높은 불안과 긴장수준에 대한 개입 그리고 북한과는 다른 남한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됨을 가늠해볼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 새터민의 성격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거주기간에 비해 더욱 뚜렷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령 低집단은 대인관계에 대한 적극성이 낮은 반면 정서적 안정감이 있고, 실리추구적인 성격특성을 가진다. 연령 中집단은 실리추구적 성향은 낮으나,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모험적·진보적이며, 사교적인 성향이 있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 高집단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배성은 높으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적고, 집단활동이나 규범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상적인 세계(예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령 中집단과 연령 高집단이 정서적 불안수준이 높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연령 高집단(4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연령 中집단(36~44세)의 경우도 불안과 죄책감의 수준이 높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희경과 신현균(2010)은 지역사회 거주자가 하나원 교육생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가족문제와 음주문제가 많았으며, 20대와는 달리 30대 이상의 경우, 하나원보다 지역사회에서 우울 수준이 더 높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30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하나원보다 지역사회 거주자에게 뚜렷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중첩시켜 살펴보면, 3~40대의 장년 새터민은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더욱이 여성새터민의 경우 양육의 책임까지 지게 되어, 그 과정에서 오는 적응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여성 새터민의 심리적응(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격특성이 심리적응을 약 30-50%나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적응의 하위요인들을 서로 중첩시켜 보면, 대인관계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회피와 친밀감의 경우 온정성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회피를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격 특성 중 도덕성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꿈과 목표를 정해서 매진할 수 있고, 삶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적게 경험하는 등 자

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에 매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EBS에서 실시한 도덕성에 관한 실험연구는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아존중감, 교우관계가 더 좋은 반면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은 집중력도 낮고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격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정지은, 김민태, 오정요, 원운선, 2008). 그리고 최빛내(2009)의 연구는 도덕성향상프로그램이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 새터민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노력은 심리적응과 사회성 향상 등에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삶에 대한 혼란의 경우, 불안성, 온정성, 도덕성, 예민성 등 14개 중 9개의 성격변수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성격특성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안성이 .001수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정체감 혼미에도 .001 수준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체감과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안성은 도덕성과 유사하게 심리적응의 전반적인 영역(목표지향성, 꿈과 목표, 강인성)에 주요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새터민 관련 여러 연구물들은 여성 새터민이 탈북과 난민과정 속에서 경험한 상처로 인해 남한사회에 입국한 후에도 불안과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강숙정, 이장호, 2009; 김희경, 오수성, 2010;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노대균,

2001; 조영아, 2009). 본 연구결과는 불안성이 여성 새터민의 심리적응에 매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다요인인성검사Ⅱ의 T점수 분포를 토대로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군집이 가장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지닌 군집의 개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제 1군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 정서성(높은 예민성, 불안성, 자책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하며, 우울과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등을 초래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적응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성격유형과 적응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제 1군은 타 군집에 비해 '정체감 혼미'와 '삶에 대한 혼란' 요인에 대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 혼란이 심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감과 혼란스러움(삶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숙정(2000)과 이장호(1997)는 새터민들이 재북 동포 및 가족에 대해 뿌리 깊은 죄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탈북 경로가 어떻든 탈북과정 자체가 엄청난 위험과 위기를 매순간 직면하게 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서적 불안,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이들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적·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 새터민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들(김종남 외, 2008;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은 제 1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 2군은 제 1군에 비해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나, 온정성,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실리성 척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남한사회의 변화와 규범, 규칙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 즉, 남한사회에 대한 재사회화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격유형과 심리적응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제 2군이 타 군집에 비해 '사회적 회피'요인 점수가 높으며, '친밀성'요인의 점수가 낮아,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집단면접을 통해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본 강숙정(2009)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인간관계에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남한사회에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초기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매우 경직되게 반응하였고, 종종 북한 특유의 언어적 특성이나 직선적인 표현 등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터민과의 접촉경험과 고정관념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도 새터민의 언어적·비언어적 특성과 표현방식이 남한사람들에 비해 '거칠고, 투박해서' 사회적 불편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 2군은 다른 군집에 비해 도덕성과 진보성 수준이 낮는데, 이들은 상대

적으로 남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며, 남한사회의 빠른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새터민과 남한사람과의 가치관을 비교분석한 정태연(2002)의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수직적 집단주의의 특성이 강하고,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우택(2000)은 이러한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차이가 남한사회의 적응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제 2군은 새로운 남한사회 문화와 규범,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북한정서 및 생활태도를 유지하는 적응양상(문화변용의 관점에서 보면 '분리형'에 해당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군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아가 성숙되며, 적절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한 특성으로,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정도도 높다. 이는 성격유형과 심리적응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바, 제 3군이 타 군집에 비해 자아정체감의 혼란이 적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꿈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삶에 대한 혼란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경과 오수경(2010)은 MMPI-2를 통해 여성새터민들을 제 I유형(정상프로파일), 제 II유형(6-7-8프로파일), 제 III유형(2-7-0 프로파일)로 구분하였는데, 제 3군은 심리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희경과 오수경의 연구(2010)에서 추출된 제 I유형(정상프로파일)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 3군은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며, 타인과 잘 협력하고, 배려하며, 적

극적이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등 적절한 대인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 1유형(정상프로파일)과는 구별된다.

지금까지 다요인인성검사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3가지 성격유형을 추출해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심리적응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터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하여 이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으나(이재창, 김영만, 2005; 조영아 등, 2009), 이들을 성격 및 인성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새터민의 성격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격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예컨대, 제 1군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군집을 구분하는 주요 준거이며, 남한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타 군집에 비해 정체감 혼미와 삶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다. 따라서 제 1군은 불안과 긴장수준을 낮춤으로써 심리적 안정성과 자아강도를 높이고,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임상적·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제 2군은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한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 남한과 북한은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과 의사소통방식이 차이가 나며(북한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인 경향이 있다), 문화와 규범, 가

치관에 있어서도 상이하다(이기영, 2002; 이재창, 김영만, 2005; 정태연, 2002). 제 2군은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가 높은 수준임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은 50여년의 분단과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채 살아왔으며, 이러한 배경적 차이는 남북한 사람들을 매우 이질화시켰다(이수원, 신건호, 1995; 이재창, 김영만, 2005). 따라서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무조건 남한사회의 질서에 편입되거나 남한사회의 문화를 흡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생활양식과 제3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적으로 창조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의 과제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차재호, 2000; 진미정, 이순형, 2006, 재인용). 제 3군은 제 1군, 제 2군과는 구별되게,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남북한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대한 꿈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강인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셀리그만의 말처럼(권석만, 2008),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강점과 덕성,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제 1군과 제 2군은 제 3군에 비해

공통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강인성과 목표지향성이 부족하다. 이는 제 1군과 제 2군 집단 모두에게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찾고,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집된 여성 새터민의 수가 통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도 특정 집단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연령과 거주기간 이외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 새터민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정신건강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결혼여부, 거주기간, 경제상태, 학력, 자녀 수, 직업 등)의 분포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심리적 개입과 정책제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모집단 분포를 고려한 표집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격특성과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새터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집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활용하여 새터민의 성격특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T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 성격유

형이 다른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결과 해석시 다요인인성검사Ⅱ 실시요강에 제시된 표준화된 T점수별 백분율을 함께 살펴보긴 하였으나, 이후에는 남성 새터민과 남한 사람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결과를 토대로 여성 새터민의 성격특성과 유형을 해석하는데 다소 임상적이고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 새터민의 심리건강 및 적응과 관련한 병리적 접근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탈북 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삶의 질과 행복, 여가생활과 재미 등 여성 새터민의 보다 긍정적인 삶의 영역을 연구함으로써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심리적응에 대한 측정변수로 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이외에 삶의 질과 행복, 문화적응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숙정 (2000). 하나원교육생 심리안정 및 인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2000년 연구용역과제.
- 강숙정 (2009). 탈북 새터민의 자기 힘 증진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 개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숙정, 이장호 (2009). 가양동 새터민 MMPI 검사결과와 새터민 심리상담적 접근. 한국

- 상담학회지, 10(1), 235-250.
-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
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계순 (2006).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허석재 (2009). 새터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화적응의 상호주의를 향하여. 한
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41, 97-120.
- 김윤나 (2007).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 염태호 (2009). 다요인 인성검사 II 실시
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샤
검사를 통해 본 새터민의 우울감. 한국심
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41-61.
-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아 (2004). 새터민의 품행장애 행동과 성
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사회과
학연구, 12, 150-168.
- 김현아 (2006).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아, 전명남 (2004). MMPI에 나타난 새터민
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새
터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증상.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29(4), 707-724.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
20.
- 김희경, 전진용 (2010). 탈북 여성에서 MMPI-2
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 내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35-353.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류재중, 조아미 (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
교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 박정란 (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 97-
135.
- 성태제 (2008). 알기 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
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5.
- 양계민, 정진경 (2005). 새터민과의 접촉이 남
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97-
115.
- 이경혜 (199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발달에
관한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일고찰. 한
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연구 6(2), 143-153.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민영 (2005).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영, 김현경 (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남한남성과 결혼
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 525-554.
- 이수원, 신건호 (1995).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이장호 · 이춘재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 이장호 (1997). 북한출신 이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총, 28(4), 739-768.
- 이재창, 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41-66.
- 정태연 (2002).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연구. 국방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장혜경, 김영란 (2001).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정지은, 김민태, 오정요, 원윤선 (2009). 아이의 사생활. 서울: 지식채널.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조영아 (2009). 새터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새터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진미정, 이순형 (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7), 141-151.
- 차재호 (2000).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 채정민 (2004). 새터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빛내 (2009).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위한 도덕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 로샤검사에 나타난 새터민의 대처와 방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507-528.
- 통일부 (2013). 북한 이탈 주민정책 최근 현황.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Press.
- Dignan, S.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476-483.
- Rausch, J. L., Lovett, C. R., & Walker, C. O.(2003). Indicators of resilience among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risk. *The Qualitative Report*, 8(4), 570-590.

논문 투고일 : 2014. 01. 08
1 차 심사일 : 2014. 01. 17
게재 확정일 : 2014. 02. 26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Young Mi Sohn

aSSIST

Sook Jung Kang

Hankyore Counseling Center

Cheong Yeul Park

aSSIS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personality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which were extracted from the T-scores of SPFQ(scales of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For this, The data of 158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located in Seoul Yangchun-Gu and Gayang-Gu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ratio of over 65T in ego-strength, self-control, social-boldness, anxiety scales and under 34T in abstractedness and openness to change scales was higher than in other scales. Second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emographic variables especially age and the term of residence in South Korea. Thirdly, three distinct groups were extracted from the K-means cluster analysis. The first group was characterized with emotional-unstabil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And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in the second group hesitated to enter into and maintain proper relationships with south korean, while they were unlikely to accept norms and rules in South Korea. The third group, characterized by higher emotional stability, ego-strength, and agreeableness, was met normal range in all the scale of SPFQ. Finally, each three groups we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aptation scales(self-identity and resilience). We expected that these results contributed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and the political plans for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settlement in Sou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Saeteomin, SPFQ, personality, self-identity, resilience